

미얀마 최대의 저항 작가 떼잉페밍(Thein Hpei Myin)의 반(反)파시즘 인민문학에 관한 연구*

최재현**

I. 머리말

미얀마의 식민지 시대라 함은,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 꼬웅바웅(Kounbaun)조(朝)(1752-1885)의 최후의 국왕인 띠보(Thibo)왕(1878-1885)이 1885년 11월 영국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왕위를 상실하고, 법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듬해인 1886년 1월부터 1948년 1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까지의 63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영국의 식민주의 정책하에서 굴욕적인 피지배 생활을 해 오던 미얀마는, 1942년이 되자 이제는 제 2차 세계 대전의 포화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일본군이 미얀마를 침략한 것이다. 1942년 1월 미얀마에 진격한 일본군이 1942년 3월 수도인 양공(Yangon)을, 5월에는 중·북부 미얀마의 요충 지대인 미얀마 제 2의 도시 만달레(Mandalay)를 점령하게 되자, 이때부터 1945년 6월까지 미얀마 전역에서는 본격적인 일본 군정이 실시되었다. 영국 제국주의 식민 정책하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려 온 미얀마인들은, 이제는 일본 군국주의라는 새로운 정치하에서 압박과 설움을 받아야만 하였다. 종주국인 영국의 부당한 식민 정치하에서, 그리고 일본의 인간 이하의 차별적인 군정하에서 자유를 잃어 버린 채 피동적이고도 피지배적인 가슴 아픈 생활을 해야만 하였던 미얀마인들은, 영국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라는 식민지 시대 때의 두 개의 커다란 저항 속에서 뼈저린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때로는 운 좋게도 새로운 창작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미얀마어과 부교수

이와 같은 식민지 시대 때의 저항 문학은 대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민 제국주의를 비난·고발하는 테마를 가졌고, 그것은 또한 압박받는 국민들의 고통과 울분을 묘사함으로써, 그 치욕의 역사를 문학으로 승화시켜 민족 정신과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미얀마의 저항 문학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메이페밍은 미얀마의 90여 년 근대 문학사 가운데 거봉을 차지하는 작가 중의 한 사람이며, 미얀마 문학 평론계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작가로 첫 손가락을 꼽는 작가이다. 파시즘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얀마 최초의 작가이기도 하였던 메이페밍은, 내놓을 만한 반파시즘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4개의 작품을 집필하였다. 그것은 1943년에 출판한 『버마의 사건(What Happened in Burma)』이라는 비평서, 1945년의 드라마 『재를 넘어서(Over the Ashes)』, 1950-1955년의 『전쟁 나그네(The Wartime Traveller)』라는 보고서, 1953-1957년의 장편 소설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As Sure as the Sun Rising in the East)』이다. 반파시즘에 대한 그의 생각과 행동은, 이 4개의 작품들과 그 밖의 몇 단편 소설들을 통하여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 4개의 작품들 중에서 『버마의 사건』과 『전쟁 나그네』는 사실의 기록에 의거한 논픽션이고, 『재를 넘어서』와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은 사실을 전달함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처럼 상상의 스토리를 전개한 픽션이다. 본고(本稿)에서 본인은 위 작품들 중, 특히, 『재를 넘어서』와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두 픽션을 통하여 픽션처럼 메이페밍의 반파시즘 문학 세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왜냐 하면, 픽션은 때로는 논픽션보다 사실에 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복잡한 투쟁과 충돌이 역사적 증거처럼 픽션에서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픽션이 우리를 매료시키는 한 이유이다.

II. 『재를 넘어서』

메이페밍은 『재를 넘어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스스로 평가하였다. "『재를 넘어서』는 처음으로 미얀마 문학에서 미얀마인들의 반파시즘 혁명을 반영한 인민 문학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Thein Hpei Myin 1981: 504).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재를 넘어서』가 미얀마 근대 문학사에서 2가지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첫 번째는 그것이 미얀마 최초의 반파시즘 문학이고, 두 번째는 인민 문학이라는 점이다. 그 점에서 본인은 이

드라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 엄격히 말하면, 미얀마 최초의 반파시즘 문학은 『재를 넘어서』가 아니라, 떼잉페밍이 1942년 8월 인도 망명 직후에 집필하여 1943년에 출판한 『버마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일본의 미얀마 침략 전후의 미얀마에 관한 생생한 다큐멘터리이다. 그러나 위의 언급에서 보면, 떼잉페밍은 논픽션을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다.

1944년 그는 인도 인민 협회(Indian People's Association)에 의한 파시즘의 통제하에 미얀마 드라마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아 미얀마어로 『재를 넘어서』라는 드라마를 집필했다. 그 뒤 그것은 영어로 번역되어 1945년 봄베이에서 출판되었고, 무대에도 올려졌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라카잉(Rakhain)의 핑쉐(Tin Shwei)와 그의 아내 마마이(Ma Mya Yi), 그리고 뇨통(Nyou Htun)의 보고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떼잉페밍과 함께 인도에 온 핑쉐는 그 뒤 미얀마에 있는 반파시즘 단체와 접촉하기 위하여 미얀마에 돌아갔는데, 레지스탕스 운동을 앞두고 있던 마마이와 뇨통과 동행하면서 1944년 1월 다시 인도로 건너갔다. 그 무렵 몇 편의 소설과 드라마가 미얀마에서 쓰여졌다. 그러나 일본의 검열하에 미얀마 작가들은 어떠한 반파시즘 운동도 그들의 작품 속에 제대로 쓸 수 없었다. 1944년 6월에 조직된 반파시즘 기구(Anti Fascism Organization)에서 육필 신문과 잡지가 그들의 활동의 한 고리로서 출판되었다. 몇 가지 감각에 의해서 그것들은 반파시즘 문학이라고 불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얀마 작가들이 어떤 것이 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던 때는, 1945년 반파시즘 혁명의 성공 후였다. 이것이 바로 떼잉페밍이 이 드라마를 미얀마 최초의 반파시즘 문학이라고 일컫는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떼잉페밍의 인민 문학에 관한 그의 의견을 알아보자. 1949년 그는 인민 문학의 한 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언급은 1938년과 1948년 그가 언급한 개념의 구체화였다. 그는 1938년 다음과 같이 언급했었다. "문학 비평의 기준은 미얀마의 독립을 위하여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국가의 대다수인 빈곤층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작가들의 임무이다. 작가들은 방관자의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조직에 가담하여 국가를 위하여 싸워 진보적인 작가가 되어야만 한다"(Thein Hpei Myin 1974a: 1-23).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1936-1938년 인도에 머무르는 동안 인도 공산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948년 문학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발전한다. "문학은 혁명의 맨 앞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 농민과 같이 압박받는 피지배층의 해방을 위한 무기가 되어야만 한다. 작가들은 계급 의식을 가져야만 한다"(Thein Hpei Myin 1971: 22-31). 이 언급은 작가들이 피지배층의 입장에 서야 하는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가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49년 이 논쟁에 불을 붙이는 시도로서, 그는 그 당시 미얀마 문학을 퇴폐 문학, 신(新)부르조아 문학, 사실 문학, 인민 문학(인민 혁명 문학), 이와 같이 네 형태로 분류하여, 인민 문학은 피지배층의 관점에 기초를 두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민 문학은 인간 사회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또한, 사회적 저항을 보이는 데에만 스스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더 나아가 그 저항의 이유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그것을 푸는 방법을 제시해야만 그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한 인민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페 잉페밍은, 또한, "이러한 인민 문학은 막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한다.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쓰는 데 대개 익숙해져 있지 않아, 그들의 작품은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작가들이 대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사실주의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그들의 일부는 그들 작품의 내용보다도 저작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Thein Hpei Myin 1973: 67-114). 이러한 그의 견해는 이미 그가 인민 문학으로서, 『재를 넘어서』를 저술한 자신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재를 넘어서』는 선동적인 드라마로서, 이 드라마의 줄거리, 등장 인물들의 성격 묘사, 구성 형식 등이 단순하고 명확하다. 시기는 1943년 말부터 1944년 봄까지이고, 장소는 만달레 북부 지방의 어느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인에게 성폭행당한 딸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저항하는 어느 농민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드라마의 등장 인물들의 성격 묘사는, 그 당시 미얀마의 거의 모든 계층의 의식들을 각각의 등장 인물들에서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아주 흥미롭다.

우오자(U Oza), 도쑤메(Do So Mei) 부부와 그들의 딸 멩메(Tin Mei)는 전형적인 농민 계층이고, 차남 포싱(Hpou Shin)은 공산주의자 칫띵(Chit Tin)에게 영향을 받아 레지스탕스의 조직책으로까지 성장하는 전형적인 노동자 계층이다. 승려인 장남 우띠로까(U Tiloka)는 그 당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민족주의자 인텔리인데, 처음에는 일본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만, 그 뒤 실망과 미움을 갖게 되어 결국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그 밖의 등장 인물들로서는 친영파인 우띵포(U Tin Hpo), 포싱의 여자 친구 쉐잉잉(Sein Yin), 친일파인 포페(Hpo Hpei)와 바쌍(Ba San)이다. 이 작품 또한 주인공들이 농민인 페 잉페밍의 첫 작품이기도 한데, 그들의 폭동은 A.F.O.의 결성 전에 일어났다. 이것은 반파시즘 투쟁이 그들과 같이 이름 없고 평범하고 정직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지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일본인들의 성격 묘사 또한 다양하다. 히라오카(Hiraoka)는 전형적인 탐욕스러운 사업가이다. 일본인 군인들은 세 가지 형태를 보여 준다. 첫 번째는 대학을 졸업한 일본의 젊은 인텔리인 하타(Hata) 중위이다. 그는 대동아 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이념에 온몸을 바쳐,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다. 그의 견해는 반공산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두 번째는 하타의 고상한 이상을 경멸하는 대위이다. 하타가 이상주의 군국주의자인 데 반해, 대위는 현실주의 군국주의자인 것이다. 그는 이 전쟁은 미얀마의 번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번영을 위하는 것이고, 그들은 일본의 승리를 위하여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헌병의 한 사람이 또한 이 타입이다. 그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온몸이 지쳐 기진맥진해 버려, 이 전쟁의 좋은 전망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간적인 충동 속에 삶으로써, 짐승 같은 그의 무자비한 행동을 합리화하려고만 한다. 그 역시 잔인하고 야만적인 군국주의자이다. 세 번째는 그들 우두머리의 명령을 아무 말 없이 복종하는 병사들의 타입이다. 더욱이 떼잉페밍은 하타의 이상주의자에서 도량이 넓은 군국주의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이 작품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일본인들의 다양한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은 미얀마의 반파시즘 문학 작품들에서 자주 발견된다.

그런데 이 작품의 최대의 결점은 대사의 표현상의 문제인데, 일본인들의 대사가 너무 틀에 박히고 상투적이어서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하타와 대위가 이 전쟁에 관하여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떼잉페밍은 하타의 이상적인 정책과 대위의 현실적인 의견을 강하게 대조시키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그 당시 군국주의 일본군 세계에서는 중위가 대위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계급간의 엄한 질서하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침략적인 전쟁으로 간주하는 대위의 생각과 같은 그러한 의견들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왜냐 하면, 일본인들은 철저한 언어의 통제하에 있었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권리는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믿도록 강요당했고, 그리하여 사소한 이견(異見)마저 저지를 당했으며, 더욱이 자유로운 대화는 위험천만하여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 당시 전시 체제 사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헌병이 군인들, 칫평,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전쟁을 불평하는 장면도 있음직하지 않다. 이것은 떼잉페밍이 그 당시 일본의 철저히 통제된 사회를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러한 묘사들이 다소 과장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 드라마의 질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떼잉페밍은 『재를 넘어서』가 드라마의 요소로 가득 차 있고, 아주 시기 적

절했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Thein Hpei Myin 1981: 501). 그러나 정교하고 풍부하고 심혈을 기울여 쓰기보다는, 거칠고 아무렇게나 대충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다(Thein Hpei Myin 1981: 501)고 털어놓은 그의 회고에 의하면, 이 드라마는 문학과 작품성 있는 예술적 작품으로서는 그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은 그의 드라마의 저작 능력에서 오는 드라마적인 표현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에서 대사는 스토리를 전개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드라마의 길이는 또한 연극의 공연 시간과 관계가 있다. 지나치게 긴 설명은 피해야만 한다. 만일 그가 반파시즘 문학 작품을 더욱더 정교하고 풍부하게 쓰고자 했다면, 다른 장르에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과 『전쟁 나그네』와 같은 장편들이 몇 년 뒤에 쓰여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III.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은 1953년 6월부터 1957년 10월까지 마와디(Myawadi) 잡지에 연재되었으나, 책으로서는 1958년 출판되어 그 해 미얀마 최고의 문학상인 싸페 베이트흐망(Sapei Beithman)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메인페밍은 실제로는 이 작품을 1950년부터 1954년까지 썼다고 말했고(Thein Hpei Myin 1969: 44). 더욱이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까지 그 구성은 이미 1950년에 끝나 있었다고 술회했다(Thein Hpei Myin 1973: 37).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은 메인페밍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대작으로서, 그가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집필 배경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도 이 소설의 작품 세계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 별도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소설의 작품 세계를 연구하기 전에 이 작품의 집필 배경에 관하여 한 번 터치해 보기로 한다.

1. 집필 배경

메인페밍은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과 거의 동시에 『전쟁 나그네』도 쓰기 시작하였다. 이 작품은 1950년 10월부터 1952년 8월까지 『전쟁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출판되었으나, 1953년 2월부터 1955년 5월까지 슈마와(Shumawa) 잡지에 『연합국의 버마 밀사(Burmese Emissary to Allies)』

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고, 단행본으로는 1966년 『전쟁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떼잉페밍은 이 작품에서 그의 조국인 미얀마를 떠나 인도에 가 있었던 1942-1945년의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있는데, 그는 인도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인도에서 반파시즘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1945년 버마 공산당(Burmese Communist Party)의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자 1945년 미얀마로 돌아왔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도에서의 반파시즘에 대한 그의 생각과 활동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러한 장편들을 하필이면 1950년에 쓰기 시작하였을까? 몇 년 뒤의 그의 회고에 의하면, 1941년부터 1949년까지의 8년간은 정치적 활동이 그의 운명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였다(Thein Hpei Myin 1981: 479).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는 특별히 정치적인 시기였던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작품들을 미얀마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반영하여 이 시기에 대해 썼고, 그 작품들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950년 가까스로 그는 반파시즘 활동 기간을 조금씩 뒤돌아보게 되었는데, 뒤돌아봄과 동시에 픽션·논픽션 작품을 모두 집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인 설정은 다소 차이가 난다.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은 주로 1938-1942년이고, 『전쟁 나그네』는 1942-1945년이다.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은 모두 73장으로 구성된 대서사시 작품이다. 작가 밉유웨이(Min Yu Wei)는 이 작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평한 바 있다. “투쟁 속에서 성장하는 젊음이라는 테마는 아주 좋다. 표현도 능숙하다. 특히, 등장 인물들의 성격 묘사는 가공의 등장 인물들과 실제 인물들 모두에서 뛰어나다. 역사적 사실도 잘 조사되었다. 유일한 결점은 전(前)편에서 다큐멘트적인 표현이 많아 종종 소설보다는 역사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Min Yu Wei 1966: 193-207). 밉유웨이가 지적한 것처럼, 이 작품은 스케일이 방대하고 인간의 삶이 잘 조명된 작품이다.

본고에서 본인은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반파시즘 면을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이 소설이 과연 반파시즘 문학 작품으로 불릴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왜냐 하면, 이 소설의 역사적 배경이 파시스트의 통제 기간이었던 1942-1945년이 아니라, 주로 1938-1942년이라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73장에서 그 절반 이상이 1300 혁명(1938년 인도·버마 분쟁과 석유 노동자 파업에서 비롯된 전국적인 민중 항쟁을 말함. 도버마어씨어요웅은 노동자는 물론 농민, 학생, 승려 등 모든 계층이 이 항쟁에 적극 가담할 것을 선동했고, 정부군의 강경 진압에 강력히 저항할 것을 촉구함. 떼잉페밍은 처음에는 양공대학 학생회와 함께 이 항쟁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1939년 1월 체포됨으로써 14

일간 투옥되기까지도 하였으나, 항쟁의 주체가 석유 노동자들에서 학생들로 바뀌어 가자 더 이상 학생들의 희생을 막기 위하여, 도버마어씨어요웅의 대부분의 리더들이 이 항쟁을 계속할 것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항쟁을 반대함. 여기에서 1300은 미얀마력 1300년으로서, 이것이 서력기원으로는 1938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1300 혁명이라고 일컬음) 기간인 1938-1939년으로 되어 있다. 1300 혁명이 어떻게 반파시즘과 관련이 되는가? 어쩌서 그는 꽤 많은 작가들이 이 기간에 대하여 작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 일본의 침략, 미얀마의 저항, 미얀마의 승리 기간인 1942-1945년에 대하여 쓰지 않았을까?

그 주된 이유로는, 그는 파시스트들의 침략 전과 침략 직후 그 기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에 그는 1936-1942년 미얀마의 해방 투쟁사와 그 당시 역사의 광명의 키포인트였던 반식민주의 국가 통합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원했고, 더욱이 가장 대중적인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것을 기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썼다고 작품의 저작 동기를 밝힌 바 있다(Thein Hpei Myin 1973: 39).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그는 이 시기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자신 스스로 1300 혁명을 재인식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희생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떼잉페밍은, 1939년 학생 데모의 중지를 명했다는 이유로 배반자로 지목되어 도버마어씨어요웅(Doubamaasiayoun : 우리 버마 연맹)의 별칭인 따킹(Thakhin)당(黨)(Thakhin Party : 1930년에 결성된 미얀마 최대의 민족주의 단체로서 1300 혁명을 주도함. 당원들이 이름 앞에 따킹이라는 호칭을 붙인 데에서부터 따킹당이라고 불리게 됨. 여기에서 따킹의 뜻은 주인, 군주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식민지 치하의 노예가 아닌 조국의 주인임을 자처하기 위한 취지임. 그들은 어머니는 나를 낳고, 감옥은 나를 길러낸다는 기치 아래 애국 독립 운동을 전개해 나감)에서 본의 아니게 축출당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누구에게도 그것을 해명하려고 들지 않았다. 꽤 많은 작가들이 여러 방법으로 1300 혁명에 관하여 글을 썼었으나, 그들 중의 일부는 떼잉페밍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1300 혁명에 관하여 무척 쓰고자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포기했었다(Thein Hpei Myin 1981: 362-367). 12년 후 그 문제에 관한 많은 책과 신문을 읽고, 그는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에서 한 평범한 젊은이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이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것 역시 이 소설의 일부분에서 그가 다큐멘트적인 스타일을 취한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되어진 이 기간을 기록하기를 원했기 때문

이다. 그는 이 기간, 특히, 1938-1942년을 일본의 미얀마 침략의 준비 과정으로 간주했다. 그는 그것을 파시스트들이 그렇게 쉽게 미얀마를 침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실지 투쟁에서 경험이 없었던 미얀마의 막스주의자들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1300 혁명이 독립 투쟁으로 발전할 수 없었던 사실에 무척 절망했었고,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무기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심지어 파시스트들에게까지라도 그들에게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했다. 그들은 일본인들과의 위험한 협력을 알보았다. 떼잉페밍은 그들의 생각이 일본의 침략 후 다음과 같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파시스트 일본군들은 찬란한 용병술을 사용하는 그러한 제국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과 애국 단체들은 더 이상 혹독한 경험을 참고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해방을 위한 단체들은 그들의 잘못을 곧 깨달을 수 있었다”(Thein Hpei Myin 1967: 39).

몇 년 후 그는 1938-1942년의 미얀마의 다큐멘터리인 『버마의 사건』의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것은 1300 혁명에서 시작된다. 영국에게 억압당한 미얀마인들은 영국인들에게 분노하고 있었고, 그때 일본의 비밀 첩보원들은 미얀마인들에게 잠입하여 그들을 유인했다. 그들은 영국과 싸우기 위하여 무기와 자금을 제공했다. 그들은 미얀마의 독립을 보장했다. 아웅상(Aun Hsan)과 그의 동지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B.I.A.(Burma Independence Army: 버마 독립 의용군)를 조직하고, 싸우기 위하여 미얀마에 돌아왔다. 그때 일본인들이 미얀마에 들어와 사람들을 억압했고, 나라를 착취했으며, 소녀들을 성폭행했다. B.I.A.와 일본인들간의 충돌은 곧바로 일어났다. 많은 미얀마인들은 일본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Thein Hpei Myin 1981: 487). 이와 같은 주기적인 설정은 거의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떼잉페밍은 1938-1942년의 역사적 사실을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에서는 픽션 스타일로, 『버마의 사건』에서는 논픽션 스타일로 썼다고 생각된다. 1300 혁명 기간의 묘사가 파시스트들의 침략의 예시(豫示)였었고, 그것은 또한 반파시즘 투쟁 사인의 복선(伏線)이었던 것 같다.

예시 또는 복선이란 뒷부분에 발생하는 사건을 가능성 있게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이야기의 앞부분에 나타나는 정보를 말한다. 이것은 이야기의 마지막 행동의 개연성을 증폭시킨다.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에서 1300 혁명의 풍부한 묘사는, 그것이 바로 파시스트 침략과 레지스탕스 사인의 예시 내지 복선으로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떼잉페밍은 반파시즘의 실제적인 투쟁보다도 이 예시 또는 복선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본

다면 이 소설 역시 반파시즘 성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이 소설이 오히려 참으로 유일한 반파시즘 문학 작품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2. 작품 세계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은 모두 그 구성이 7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3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A) 9장, 1917-1938, 명통(Tin Htun)의 배경 회상
- (B) 44장, 1938-1939, 주로 명통의 1300 혁명 투쟁 묘사
- (C) 20장, 1940-1942, 명통의 반파시즘 운동 진행 묘사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페이페밍은 반파시즘의 형성 과정을 명통과 다른 등장 인물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묘사하고 있다.

(A)에서 명통은 전형적인 한 평범한 학생이다. 페이페밍은 그 자신의 자서전적인 요소들을 스토리 속에 능숙하고 숨겨 있게 엮어내면서 명통의 평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한 평범한 청년이 학생 운동과 독립 투쟁에 가담하는 개인성을 보여 준다.

(B)에서 명통은 더 이상 전형적인 한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중산 계층의 한 학생 리더이다. 작가의 자서전적인 요소들은 이 부분에서는 약하다. 1300 혁명을 통하여 그는 따킹의 젊은 막스주의자들과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나 학생 데모의 붕괴 후의 혼란은 그를 불안정하게 한다. 그는 이 시기에 연애 사건에 휘말리는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이것은 그가 아직 성숙된 인간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이 에피소드는 이 소설의 스토리를 충분히 픽션답게 한다. 이 부분에서 다큐멘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가 아니었더라면 이 부분은 자칫 논픽션처럼 느껴질 뻔했다.

(C)에서 명통은 반파시즘 투쟁에 맨 앞장서는 리더가 되려고 한다. 대부분의 미얀마인들이 일본인들에 대한 환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는 레지스탕스를 위하여 조직을 결심함으로써 선견지명이 있는 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이 부분에서는 자서전적인 요소들과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들이 혼재한다. 명통의 경험과 작가의 경험이 서로 겹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그들의 의견 또한 서로 겹친다.

그들의 공통된 경험은, 첫째, 처음에는 영국을 축출하려는 목적하에 1300 혁명 직후인 1939년 9월 막스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나, 그 후 일본의 도움으로 세력이 커지는 인민 혁명당 P.R.P.(People's Revolutionary Party)에 1941년 12월 가담했던 일이다. 이 조직은 따킹당의 한 지하 조직으로서, 일본인들은 그

들에게 무기와 자금 제공을 약속했다. 떼잉페밍은 그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1941년 12월까지 나는 P.R.P.의 한 실제 당원이 아니었으나, 그 달, 사회주의자들의 잘못된 계획에 약간의 공감과 P.R.P.와 일본인들간에 이루어진 비밀 협정에 회미하지만 회미한 희망이나마 가지고,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생각과 친파시즘의 폭풍이 가라앉기 시작할 때 원하는 쪽으로만 방향을 틀어 바람을 거슬러 안전하게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선장을 폭풍 바다 위의 배와 같은 대중이 필요로 한다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P.R.P.의 최고 회의가 임명한 Upper Burma 리더직을 수락하였다"(Thein Hpei Myin 1943: 7). 그는 P.R.P.의 세력 범위를 통하여 반파시즘에 관한 그의 이론을 전하기 위하여 P.R.P.에 가담했던 것이다.

그는 현행 문제들과 직면하자 제국주의 영국과 일본 모두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일본에게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 하면, 그는 일본의 도움으로 영국을 축출하려는 계획, 일본이 미얀마 영토에 들어오기 전에 미얀마의 독립을 선언하려는 계획, 그리고, 그 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미얀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려는 계획들을 세워 놓았기 때문이다(Thein Hpei Myin 1981: 479). 그러나 명통은 작품에서 보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P.R.P.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의 행동은 진지하게 독립을 갈망하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젊은 막스주의자였다. 연애 사건에서의 그의 약함과 우유부단한 태도 역시 그가 아직 완전한 혁명가가 아님을 보여 준다.

그들의 공통된 경험 둘째는, 1941년 일본 폭격기에 의한 양공 공습이다. 공습 때 명통의 친한 여자 친구 중의 한 사람인 마밍오(Ma Myin Ou)가 죽자, 명통은 깊이 내성하며 사색에 잠긴다. 그녀의 죽음과 공습으로 인하여 그는 점점 제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간다. 처음에 그는 이 전쟁을 미얀마 독립의 기회로 간주하여 심지어 미얀마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조차 희망하였다. 그러나 공습 후 이러한 무분별함과 경솔함은 그로부터 멀어져 갔고, 그는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파괴된 건물, 불탄 시체와 난민들을 목격하고서, 그는 전쟁은 무자비하고 무자비한 전쟁 때문에 가장 비참한 것은 대중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의 세 번째 공통된 경험은, 그들이 일본으로부터 무기들을 헛되이 기다렸던 일이다. 대학 졸업 후 명통은 신문사에 취직을 하였다. 직업상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신경을 써야만 했으나, 무기 확보라는 그의 진지한 소원은 파시즘에 대한 신중함을 등한시하게 하였다. 그는 독립을 위하여 무기로 무장한 폭동이야말로 최상의 혁명적 활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 역시 그 당시 젊은 막스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생각이기도 하였다. 일본으로부터의

무기에 대한 그의 기대는, 그가 그것을 얻을 수 없었을 때 환멸의 쓴맛을 느낄 정도로 컸었다. 그는 실제 등장 인물의 한 사람이고, 바로 작가 자신인 페잉페 (페잉페밍의 본명임)와 만달레에서 만나 그 건에 관하여 의논을 한다. 그의 환멸은 분노로 바뀌고, 그것은 점점 레지스탕스의 파워로 커져 간다.

페잉페밍은 평통을 중산 계층의 전형적인 학생 리더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 반파시즘의 조직책으로 발전시킨다. 그 후 평통의 양공 여행은 반파시즘을 위한 그의 마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다. 『버마의 사건』에 나타난 페잉페밍의 정보와 관찰 역시 이때 풍부하게 채택되어진 것이다. 양공에서 비밀리에 믿을 수 있는 동지를 찾는 평통은, 이제 더 이상 변덕스럽거나 우유부단하거나 게으름 피우지 않는다. 그는 순조로운 반파시즘 운동과 독립을 기대하면서 그의 행동을 신중하고 대담하게, 그리고 관대하고 엄격하게 개시한다. 그는 한편으로는 미얀마에 머무르며 대중을 조직했던 페잉페밍 그 자신인 것이다.

이 소설에서 여러 등장 인물들의 일본인들에 대한 태도는 다양하다. 대부분의 등장 인물들이 실제 인물들인 따킹 쏘(Thakhin Sou), 따킹 땅통(Thakhin Thanhtun), 아웅상(Aun Hsan), 흘라페(Hla Hpei), 바헤잉(Ba Hein), 다고웅따야(Dagoun Ta Ya) 등 미얀마 근대사의 유명한 정치가들이어서 여기에 그들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소설에서 대충 네 가지 성격 타입의 등장 인물들이 나온다.

첫 번째 타입은, 일본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다. 따킹 띵지(Thakhin Tinji)는 1938년 경찰의 스파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이다. 1938년 인도인들과 미얀마인들과의 충돌 때, 그는 평통에게 접근하여 인도인에 대한 그의 증오심을 부채질하려고 애썼고, 1939년에는 브로커로 가장하여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를 제공하는 학생 리더들과 접촉하려고 애썼으며, 1942년에는 평통이 숨어 있는 양공 까마웃(Kamayut)의 행정 위원회의 장으로 군림했던 사람이다. 그의 연설에서 그는,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의 의미는 일본 군대가 미얀마를 구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태양의 깃발을 휘날리며 동쪽에서 온다는 뜻이다."라고 그 원래 의미로부터 따킹당가(歌)의 한 절을 왜곡하기도 하였다. 그의 행동이 일본의 미얀마 침략 전 일본 비밀 첩보원들의 기동 연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그는 유일한 악당이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평통의 오랜 여자 친구 윈니(Winni)는 한 일본인 장교와 결혼을 하였다. 그녀는 퇴색한 양가집의 한 규수로서, 그들의 까다로움 때문에 결혼할 기회를 놓친 여자였다. 그들은 과거 관료 주의의 집안이어서, 페잉페밍이 『버마의 사건』에서 지적한 것처럼 쉽게 일본 쪽으로 기울었다(Thein Hpei Myin 1943: 24-25). 평통의 전(前)애인 마야흐미

(Ma Mya Hmyi)는 타고난 장사꾼이다. 그녀는 사업상 일본인 사업가들과 교제하며 함께 일을 한다. 까마웃에서 이발사를 하고 있는 성실하고 열성적인 민족주의자 꼬바쭈(Kou Ba Kyu)는 따킹 명지 밑에서 일을 한다. 그는 일본은 미얀마의 우방이고 대동아공영권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결코 일본인들은 미얀마인들에게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타입은, 중립에서 반파시즘 쪽으로 바뀌는 유형이다. 의사 멩똥홀라(Tin Tin Hla)는 처음에는 영국인과 일본인에게 똑같이 의사로서의 임무를 다하려고 하지만, 일본인들의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에 분노를 느껴 일본에게 절망한다.

세 번째 타입은, 후에 반파시즘 투쟁을 벌일 것 같은 암시를 주는 사람들이다. 멩퉁의 가장 어린 여자 친구 마킹똥(Ma Khin Thit)과 그녀의 어머니 도농(Do Nyun)은 처음부터 매우 과격파였다. 전통 국수주의자인 그녀의 아버지, 우쉐페(U Shwei Hpei)는 막스주의 사상에 관한 책을 건네준 그의 친구 이름의 자백을 거부하자, 일본인에게 몹시 시달리는 혹독한 고문을 당한다.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작가는 멩퉁이 그들과 만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넌지시 나타낸다. 멩퉁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P.R.P.에 그를 초대한 에웨(Ei Ngwei)는, B.I.A.의 내부에 반파시즘을 조직하기 위해서 B.I.A.에 가담하여 폭동의 기회만을 노린다. 작가의 생각이 에웨의 생각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 그 밖에 산(Shan)주에서 온 진보적인 학생 콩따먓(Kun Tha Myat), 그의 아내가 일본인들에게 성폭행당하는 마부 멩페(Tin Hpei), 메이트틸라(Meitthila)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 퉁쎄잉(Htun Sein) 등이다. 떼잉페밍은 이들과 같이 깨어 있는 의식과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레지스탕스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타입은, 오직 관망하는 태도만을 보이는 가난한 대중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까마웃과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인데, 그들은 언제나 혼돈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사실 그들과 같은 대중들은 언제나 모든 계층 중에서도 가장 괴로움을 당한다. 전쟁 중 그들의 집들은 불타 버리고, 그들의 생계 수단은 강탈당하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들은 다른 계층보다도 훨씬 피해를 당한다. 대중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떼잉페밍은 그 당시 전쟁을 독립의 기회로 여기며 기대하는 젊은 막스주의자들이 대중들의 고통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대중들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후에 떼잉페밍은, 미얀마에서 반파시즘 운동이 일본 침략 후 기대한 만큼 그렇게 성공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대중들을 품는 조직력이 결여된 레지스탕스 운동과 그 운동이 두 세 명의 운동가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Thein Hpei Myin 1967b: 40). 이 언급 또한 그가 대중들의 입장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알게 하는 대목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미얀마 최대의 저항 작가 떼잉페밍의 작품들을 통하여 그의 반파시즘 문학 세계를 살펴보았다.

떼잉페밍의 반파시즘의 아이디어와 그 운동에 기초를 두고 있는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은, 작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주인공인 한 평범한 청년의 내적 묘사를 통하여 파시즘에 대한 저항을 그 주제로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일본 군정 시대인 1942-1945년이 아니라 주로 1938-1942년 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반파시즘의 성격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작품이 미얀마에서 가장 유일한 반파시즘 문학 작품이라고 불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떼잉페밍은 반파시즘 집필 의욕을 정교하고 풍부하게 장편 소설에서 얻었다. 이것은 드라마에서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에서는 『재를 넘어서』와 같이 그렇게 거칠고 참을성 없는 분위기를 발 견할 수 없다. 등장 인물들의 성격 묘사는 드라마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 그것들은 작가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유롭게 묘사될 수 있다.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에서 떼잉페밍은 역사적 증거대로의 연대기적인 시술 방법으로 주인공의 정신적·정서적 성장 과정을 리얼하게 묘사함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 시대에 성장하는 젊은이의 한 인생 이야기를 쓰는 데 성공했다.

오늘날에도 그 테마가 반파시즘, 반식민주의, 독립 투쟁인 작품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떼잉페밍의 반파시즘 두 픽션은 그가 대중에게 크나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말해 준다.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정치가와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대중이다. 가장 억압받는 대중이 자각하여 일제히 일어난다면, 그들은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떼잉페밍은 『재를 넘어서』에서의 농민 가정과,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에서의 땡통과 그 밖의 등장 인물들을 통하여 그것을 신랄하게 보여 주고 있다.

본문에서 보듯, 1941-1949년의 그의 과감한 정치적 역정은 인민 문학이라는 새로운 착상과 개념을 초래했다. 『재를 넘어서』는 그것의 구체화된 표현이었

다. 『재를 넘어서』에서 그는 고통과 억압받는 대중들의 입장에 서서 그 당시의 사회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은 인민 문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이 작품이 1950년대에 쓰여졌을지라도, 1950년대 미얀마의 사회 문제와 그 문제를 푸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떼잉페밍은 반파시즘 문학 작품을 오직 과거의 전통적인 습관대로 쓰지 않았다. 그 속에는 1950년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을 위한 암시적인 표현들이 가득 들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당시 선동적인 의미를 갖는 인민 문학이라는 개념이 『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에서 한층 더 강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몇 년 후 떼잉페밍은, 그가 정치와 문학 모두에서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오히려 찬스로서 행운이었다고 술회했다(Thein Hpei Myin 1981: 504). 그의 반파시즘 문학은 그의 과감한 반파시즘 투쟁의 열매였던 것이다. 혹자는, 떼잉페밍이 그의 정치 활동이 아니었더라면 그의 훌륭한 문학적 재질이 더욱더 빛을 발하여 작가로서 훨씬 명성을 떨쳤을 것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사회를 통찰력 있게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격동기의 정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훌륭한 문학적 재질은 그의 작품의 내용으로부터 기인하였고, 그것은 그의 정치적 사상과 활동의 열매였던 것이다. 떼잉페밍이 그의 정치 활동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수작의 작품들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훨씬 설득력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주제 용어 : 반파시즘 문학, 인민 문학, 저항 작가

참고문헌

- Aun Hsan Su Kyi. 1991. *Freedom From Fear*. London: Penguin Books.
 _____. 1993. *Kyautyunjinhma Lutkinyeihnin Acha Sadanmya*(미얀마 문학). Guildford: La Haule Books.
 Collis, Maurice. *Last and First in Burma*. London: Faber and Faber Limited.
 Jesse, F. Tennyson. 1946. *The Story of Burma*. London: Macmillan Co. Ltd.
 Khin Maun Nyun. 1999. *Myanmar Literature*. Yangon: Sapei Beithman.
 Malikha. 1968. *Myanma Wuthtu Ahnyun*. Vol. 1(미얀마 소설). Yangon.

- _____ 1969. *Myanma Wuthtu Ahnyun*. Vol. 2(미얀마 소설). Yangon.
- _____ 1970. *Myanma Wuthtu Ahnyun*. Vol. 3(미얀마 소설). Yangon.
- _____ 1971. *Myanma Wuthtu Ahnyun*. Vol. 4(미얀마 소설). Yangon.
- _____ 1972. *Myanma Wuthtu Ahnyun*. Vol. 5(미얀마 소설). Yangon.
- Maun, Maun. 1962. *Aun Hsan of Burma*. Southeast Asia Studies. Yale University.
- Min Yu Wei. 1966. *Myanmaza Meippwe*. Vol. 2(미얀마 문학). Yangon.
- U Hpei Maun Tin. 1987. *Myanma Sapei Thamain*(미얀마 문학사). Yangon: Sapei Sapei.
- Thein Hpei Myin. 1943. *What Happened in Burma*. Allahabad.
- _____ 1953. *Lanza Po Bi Wuthtushei*(초기 장편 소설). Yangon: Myanmar A-lin Dhadinza Pounhneittait.
- _____ 1958. *Asheiga Neiwun Twette Pama*(동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Yangon.
- _____ 1965. *Khit Thit Hsan Bi*(재를 넘어서). Yangon.
- _____ 1967a. *Kyano Kyounbudho Gaba*(내가 경험한 세상). Yangon: Anoyahta Pounhneittait.
- _____ 1967b. *Tohlanye Kala Nainganye Atweiakyoumya*(혁명기 정치). Yangon: Shweipyidan Pounhneittait.
- _____ 1968. *Sit Atwin Khayidhe*(전쟁 나그네). Yangon: Kumaya Pounhneittait.
- _____ 1969. *Kyano Wuthtumyadehma Kyano Zathsaunmya*(떼잉페밍). Yangon.
- _____ 1970. *Dhabeithmaut Kyaundha*(학생 데모). Yangon: Kumaya Pounhneittait.
- _____ 1971. *Sabaunzu Sapei Weihpanyei*(비평 문학). Yangon: Nadhatait.
- _____ 1973. *Taippwe Win Samya*(전쟁의 글). Yangon: Bama Khit Sapei.
- _____ 1974a. *Hsaya Lun Athtoupatti*(전기문). Yangon: Thazin Pounhneittait.
- _____ 1974b. *Sapei Bawa Zatlanzoun*. Vol. 1(문학 인생). Yangon: Yilei Sapei.
- _____ 1975a. *Sapei Bawa Zatlanzoun*. Vol. 2(문학 인생). Yangon: Thanlwin Sapei.
- _____ 1975b. *Sapei Hsweinweibwe*(문학 토론). Yangon.
- _____ 1975c. *Tetkhit Tetlu Tethpounji Theinhpei*(떼잉페). Yangon: Thanlwin Sapei.
- _____ 1976. *Wuthtu Paunjout*(근대 소설 모음집). Yangon: Bagan Saouttait.

_____ 1981. *Sapei Bawa Zatlantzoun*. Vol. 3(문학 인생). Yangon: Thanlwin S-apei.

_____ 1998. *Wuthtutou Paunjout Thit*(근대 단편 소설 모음집). Yangon: Yapyi Saouttait.

大野 徹 譯. 1992. *ビルマ文學史*. 東京: 勁草書房.

南田みどり 譯. 1989. *東より日出ずるが如く*. 東京: 勁草書房.

石井米雄. 1994. *もっと知りたいミャンマー*. 東京: 弘文堂.

奥平龍二. 1997. *ミャンマー*. 東京: 東京美術.

A Study on the Anti-fascism Literature of Thein Hpei Myin Who is the Greatest Resistance Writer of Myanmar

Jae-hyun Choi

Thein Hpei Myin is a writer who struggled against fascism, and he wrote four works which can be called anti-fascism literature. They are 『What Happened in Burma』, a review published in 1943, 『Over the Ashes』, a drama in 1945, 『The Wartime Traveller』, accounts in 1950-55 and 『As Sure as the Sun Rising in the East』, a novel in 1953-57. His thoughts and actions of anti-fascism can be confirmed through these four works and some other works.

In these four works, 『What Happened in Burma』 and 『The Wartime Traveller』 are nonfictions which based on the records of fact. 『Over the Ashes』 and 『As Sure as the Sun Rising in the East』 are fictions whose purpose is not to communicate the facts but to express the imaginative story as if it were a real story.

『As Sure as the Sun Rising in the East』, based on the idea and activity of anti-fascism of Thein Hpei Myin, described anti-fascism as personal experience through inner description of an ordinary youth. Though its historical background is not in 1942-1945 but mainly 1938-42, there are many features of anti-fascism in it. Therefore it may be called a unique anti-fascism literature in Myanmar.

Key Words : Anti-fascism Literature, People's Literature, Resistance Writer